

운동주의 시 「간(肝)」에 나타난 ‘시적 주체’의 지평

박 군 석*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시 「간(肝)」의 ‘시적 주체’와 문화적 맥락 |
| 2. 시 「간(肝)」의 내재적 구조 | 5. 맺음말 |
| 3. 시 전체의 흐름과 시 「간(肝)」의 자리 | |

국문초록

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면서 시적 발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시적 주체를 내세운다. 텍스트의 발화를 이끌어가는 시적 주체는 자신이 서 있는 지평을 펼쳐 보임으로써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 시 「간(肝)」은 내재적 구조를 이해의 근본 토대로 삼으면서도 전체적인 시작품이 전개되는 과정과 시작품이 생성되는 문화적 맥락 사이에서 읽혀질 때 시적 주체의 지평이 새롭게 재현될 수 있다.

운동주의 시작품이 전개되는 과정은 연희전문학교 입학 이전과 입학 이후, 일본 유학시절 등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는 학생 신분으

* 부산대학교 박사 졸업

로 일생을 보냈는데 자기 세계와 현실 인식 사이에서 새로운 시적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기독교와 유년 시절의 체험에서 형성된 자기 세계는 운동주의 시적 추구를 이끌어가는 근간이 되었다. 연희전문학교 시절, 그는 타자와 자신의 모순에서 형성되는 자기 분열의 현상을 의식 지평에서 낱낱이 펼쳐 봄으로써 확고한 삶의 지향을 결의한다. 일본 유학은 그 자체가 확고해진 자기 신념의 실천이었다. 시 『간』도 이러한 시적 전개 과정 속에서 형성된 시적 발화임을 알 수 있다.

시 『간』의 시적 주체 “나”는 “거북이”, “독수리”, “프로메테우스”를 직접 호명하며 2인칭의 대화 상대로 삼고 있으며, 비유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토끼“처럼” 간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난 자이다. 시적 주체가 호명하는 대화 상대는 실제 시인의 실존적 상황에서 접하는 타자를 상징하고 있다. 당대에 널리 유행한 활자본 『토끼전』을 살펴 볼 때, “거북이”는 당대의 권력 구조 내에서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확보한 자이다. 프로메테우스의 상징성은 서구 사회에서 알려진 그리스 희곡의 원전과, 당대에 쓰여진 채만식의 희곡 『제향(祭饗)날』과 김오성의 논문 『時代와 知性的葛藤-프로메테우스의 事態』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의 6연은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신약성서 『마태복음』 18절이 결합되어 있다. 시적 주체 “나”는 불완전한 지식을 전수하는 프로메테우스의 행위가 “어린 아이”를 “실죽게 하는 일”이라고 본 것이다. 3연에 나타난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는 시인의 내면에 주어진 혜안(慧眼)으로서 “나”의 고통 속에서 성장하여 하늘 높이 힘차게 비상하여 더 넓은 시적 지평으로 자기 의식을 이끌어 간다.

시인은 당시 지식인들이 “소자(小子)”의 소박한 삶들을 도외시하고 계몽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인식 세계에 동조하도록 그들에게 독려하는 행위를 비판한다. 시인이 추구해온 ‘어린 마음’(동심)은 인간이 소중히 간직해야하는 선형적 지평이라 할 수 있다. 시 『간』의 시적 주체는 프로메테우스를 단죄하는 목소리를 통해 당대 지식인의 모순된 현실을 펼쳐

보인다. 동시에 그 목소리가 발현하는 시적 지평의 경계에서 다가오는
 엄연한 역사의 주체, 공적 담론에서 소외되어 온 “소자(小子)”의 존재를
 드러낸다. 이 “소자”는 인간이 회복해야하는 주체의 본래 모습이며 자기
 정립의 근원적 지평에 서 있다. 운동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입지
 의 가능성을 모두 희생해가면서 시적 사유를 통해 한국인이 근대적 주
 체를 정립할 수 있는 의식 지평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주제어 : 운동주, 시적 주체, 프로메테우스, 가시대, 비가시대, 동심, 지식
 인, 1930년대.

1. 머리말

1941년 11월 운동주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신의 현실 인식
 과 새로운 삶의 결의를 담은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발표하고
 자 하였다. 하지만 그의 뜻은 일제의 탄압을 염려한 주변 사람들의 만류
 에 의해 보류되고 만다.¹⁾ 그리고 시인은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되는데,

1) 정병욱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처음에서는(『서시』가 되기 전)
 시집 이름을 『병원』으로 붙일까 했다면서 표지에 연필로 <병원(病院)>이라고 써
 넣어 주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상이 온통 환자투성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병원이란 앓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
 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느냐고 겸손하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시고를 받아보신 이양하 선생님께서는 출판을 보류하도록 권하셨다. 『십자
 가』, 『슬픈 족속』, 『또 다른 고향』과 같은 작품들이 일본 관헌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을뿐더러 동주의 신분에 위험이 따를 것이니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을 것이
 다. …(중략)… 시집 출판을 단념한 동주는 1941년 11월 29일자로 작품 「간(肝)」
 을 썼다. 발표와 출판의 자유를 빼앗긴 지성인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지만 그는
 스스로를 달래지 않을 수 없었다.”(정병욱, 『잊지 못할 운동주의 일들』, 『나라사
 랑 23권』, 외솔회, 1976, 140-141쪽.) 정병욱은 연희전문 시절 운동주와 기숙사와
 하숙집에서 동고동락하였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이후 독자들에게 운동주가 일

그 즈음에 『별헤는 밤』(1941. 11. 5.), 『서시』(11. 20.), 『간』(11. 29.), 『참회록』(1942. 1. 22.) 등을 차례로 창작하였다. 일제가 전쟁 준비를 강화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일본어 강제 사용과 언론 통제, 강제 징용과 수탈, 창씨개명 등의 탄압을 자행하는 시점에서 시인은 치열하고 깊은 자기 성찰 끝에 일본 유학을 결정한 것이다.

시 『간』은 이처럼 시인이 인생의 중대 결단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창작되었으며, 넓게 펼쳐진 현실의 인식 지평 위에 형성되는 내적 갈등과 결단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이 시는 당시 독자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진 『토끼전』과, 기원전 고대 그리스에서 창작되어 전승되어 온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마태복음』 18절의 화소가 차용되어 시인의 자기 주체성을 드러낸다. 이 시에 차용된 화소들은 시인의 현실 인식을 상징적으로 재현한다. 시인은 시 창작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전체 지평을 조망하면서 신중히 주체 정립의 토대를 만들어 갔다.

시 『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프로메테우스’가 일제의 권력에 대항하여 자기 양심을 지키려는 시인 자신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김효신은 ‘프로메테우스’가 “시대를 위해 기꺼이 순교하는 신화 수용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전형”²⁾이라고 평가하였고, 남진우는 이 작품이 모성적 공간인 어둠을 지향하며 “그의 무의식에 뿌리 내린 근원회귀적 상상력”³⁾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한다. 김응교는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관점에서 윤희주의 시에 접근한다. 그는 시인이 자기 성찰의 궁극에서 “육체의 ‘간’을 내어주고, 영혼의 ‘간’을 지켜내”⁴⁾ 길을 걸어간 것으로 보았다. 류양선은 당시 중일전쟁에서 승리한

제 암흑기의 저항 시인이라는 문학적 배경지식을 형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

2) 김효신, 『한국 근·현대시에 나타나는 프로메테우스 수용양상 소고』, 『한국사상과 문화』 71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91쪽.

3) 남진우, 『윤희주 시에 나타난 빛어둠의 이원적 상상 구조 -간(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69쪽.

4) 김응교, 『단독자 키에르케고르와 윤희주-「길」, 「간」』, 『기독교사상』 670호, 대한기

일본제국주의를 두둔하는 백철의 글에 대한 김오성의 반박⁵⁾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운동주의 시 「간」을 분석한다. 그는 운동주가 김오성의 입장을 온전히 수용하였으며, “이 시의 끝부분에서 프로메테우스가 “목에 멧돌을 달고/ 끝없이 沈澱”한다고 말한 것은 내면화된 순교정신의 표현”⁶⁾이라고 해석한다.

위에서 살펴본 운동주의 시 「간」에 대한 연구들은 이 시에 나타난 시적 주체가 강압적인 시대에 저항하는 프로메테우스의 성격을 지향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시에 나타난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적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영웅적 성격과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목에 멧돌을 달고 바닷속으로 침전하는 자”는 신약성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소자(小子, 어린 아이)를 실족케 하여 벌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의 시적 주체 “나”는 다양한 대화 상대를 설정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드러내지만, 위의 연구들은 그 양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시적 주체는 시텍스트의 창작 당시 시인에게 직접 주어진 실제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본래적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재조명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운동주의 문학은 기독교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저항정신의 재현이라는 기존의 배경 지식을 지양하면서, 텍스트의 엄밀한 내재적 구조 분석과 함께 다양한 외재적 맥락으로 그 의미 모색의 방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⁷⁾

독교서회, 2014, 178쪽.

5) “운동주는 ‘지성론’과 관련하여 김오성의 논문 『時代와 知性的 葛藤-프로메테우스의 事態』(『조선일보』, 1939.1.22.~2.2.)를 스크랩하였는데, 이 논문이 운동주가 시 <간>을 착상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김오성의 이 논문은 백철의 논문 『時代的 偶然的 受理-事實에 대한 精神의 態度』(『조선일보』, 1938.12.2.~12.7)에 대한 반박으로 씌어진 것이다. 운동주가 이 두 편의 논문을 읽어보고 스크랩까지 해 두었다는 것은 그가 당시 시대적 현실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지식인의 논쟁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류양선, 「운동주의 <肝> 분석」, 『한국현대문학연구』 32호, 한국현대문학회, 2010, 450쪽.

6) 위의 글, 467쪽.

시텍스트는 시인이 처한 일정한 담론 상황에서 형성된 발화 행위이다. 발화 행위는 항상 발화 주체와 청자 혹은 수신자를 전제로 한다. 시인은 자신의 세계관을 토대로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며, 그 인식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공통된 문화적 맥락에서 시어를 선택하여 시작품을 창작한다. 그러므로 시적 발화를 이끌어가는 ‘시적 주체’는 시인이 처한 사회적·전기적·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시적 지평 위에서 정립된다.⁸⁾ 그런데 창작 당시와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있는 이후 세대의 독자는 은연 중에 이전 세대의 문화적 담론 상황을 짐작해 가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진 문학 텍스트의 내재적 구조와 직면하게 된다. 독자는 시 감상의 과정에서 시작품에 펼쳐진 시적 지평을 재구성하면서 발화 주체의 형상을 뚜렷이 대면해 볼 수 있다. 이때 시적 주체가 서 있는 시적 지평은 내재적 구조로부터 이해된 세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실제 발화 행위가 일어난 당시 시인의 실존적 상황으로 열려 있다. 시인은 고양된 현실의 삶에서 시적 주체를 상정하기 때문에, 시인의 실

7) 허정은 “문학작품이란 단 하나의 고정된 의미에 환원되지 않고 읽힐 때마다 의미가 변화는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투쟁적이고 행동적인 저항과 운동주의 사이에 난 공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운동주의 시적 주체는 “공동체의 도덕에 종속되었던 주체에서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책임지는 윤리적 주체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허정, 『운동주의 시의 정전화와 민족주의 지평 넘기』, 『어문론총』 51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586-593쪽.

8) 시를 담론으로 간주하는 맥락에서 보자면 시는 시인의 순수한 정서의 표출물도 아니고 자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짜여진 언어적 구조물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언어 그 자체가 사회적 산물인 동시에 자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말하는 주체’로서 시적 주체를 보는 경우에는 실제 시인과 텍스트 내의 ‘나’ 사이의 동일성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질문이 된다. 어차피 시인은 동일성을 가진 안정된 존재가 아니라 시를 생산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구성해가는 ‘과정 중의 주체’이며, 텍스트 내의 ‘나’는 텍스트의 효과로서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상(像)이기 때문이다. ...중략... 발화 행위의 주체는 시인, 곧 특정 역사적인 맥락 속에 살과 피를 갖고 있으며 시의 형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주체이며, 발화된 기호들로부터 구성되는 발화 내용의 주체는 인물, 즉 퍼소나라고 할 수 있다. 윤지영, 『시 연구를 위한 시적 주체(들)의 개념 고찰』, 『국제어문』 39집, 국제어문학회, 2007, 157-159쪽.

제 삶은 시작품의 해석 과정에서 재구성되는 시적 지평을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 즉 시인의 삶은 텍스트에 은폐된 시적 지평을 펼쳐볼 수 있는 주요한 단서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인과 문학 세계에 대한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날 때, 시작품은 일정한 시간·공간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다간 한 실존의 발화 행위로 접근할 수 있으며, 시적 언어 구조가 지시하는 삶의 진실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시적 주체가 서 있는 지평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된 세계의 총체”이며, “공간의 지각뿐만 아니라, 시간의 내면 의식과 상호 주관관계도”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주체에 의해 직관되는 지평 구조는 “그 자체 내에 실제로 또는 현재에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지평은 실제로 주어진 모든 것과 함께 깨어난다”고 할 수 있다.⁹⁾ 미셸 콜로는 이처럼 현상학적 사유를 자신의 문학 이론에 도입하여 시적 지평을 가시태(可視態)와 비가시태(非可視態)로 나누었다. 시적 지평에서 가시태는 내재적 구조와 객관적인 시대 상황에서 명확히 드러난 세계이다. 비가시태는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한 독자의 독서 과정에서 재구성되는 시적 지평에서 시인의 새로운 실존 가능성이 펼쳐지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시 「간」에 나타난 시적 주체는 시인 운동주의 삶과 시적 지평이 확장되어온 궤적을 고려하는 가운데 어떤 한 시점의 뚜렷한 정위(定位)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한 편의 시텍스트는 시인의 실존적 삶이 진행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며 전체 시가 전개 되는 과정의 특정한 자리에 선

9) 미셸 콜로, 정선아 역, 『현대시와 지평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3, 15쪽.

10) 운동주의 시편들은 거의 모든 시들이 일기처럼 창작연월일을 명기해두고 있기에, 시적공간의 규명을 통해 시인의 의식공간을 추출하고, 그 의식공간을 통해 시인의식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개인사적 흐름도 중요한 요소로 감안해야 한다. 남송우, 『운동주의 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의 한 양상 - 일본 유학 시절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0집, 한국문화회, 2005, 170쪽.

시적 주체의 발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 「간」의 내재적 구조와, 외재적 요소인 발화 행위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할 때 시적 주체가 서 있는 현실의 지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적 발화가 일어나는 시적 지평의 경계에서 생성되는 자기 정립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시 「간(肝)」의 내재적 구조

시 「간」에 나타난 「토끼전」, 「프로메테우스 신화」, 신약성서 「마태복음 18절」 등의 세 가지 화소는 이 시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한다. 이 시에 차용된 세 가지 화소는 언어의 자율적 구성체인 텍스트 속에 어떤 상관 관계로 얽혀 있으면서도 연관의 인과성은 은폐된 채 시적 주체가 서 있는 지평을 암시해 주고 있다.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서스 산중(山中)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는 여원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龍宮)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멧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沈澱)하는 프로메테우스.

- 『간(肝)』(1941. 11. 29)의 전문

이 시에서 시적 주체 ‘나’는 “코카서스 산중(山中)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 간을 지키고 있으며, “내가 오래 기르는 여원 독수리”에게 자기 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4연의 끝에 접속부사 “그러나”를 사용하여 1~4연에 나타난 “나”의 태도 전환이 5연에 나타난 거북이의 입장과 상반됨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라고 단언하며 자기 간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결의한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라고 부르며, 그의 죄목 “불 도적질한 죄”와 “목에 멧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형벌을 명시하면서 그에 대한 연민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내재적 구조로 볼 때 시적 주체 “나”는 ‘프로메테우스’와 동일한 존재로 보는 관점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¹¹⁾ 2연에서 “나”는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간을 지키고 있는데, ‘코카서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 “나”는 프로메테우스가 결박되어 있었던 코카서스에서 도망해온 후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간을” 말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1~2연의 ‘나’는 바닷가에서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고 있고 6연의 ‘프로메테우스’는 바다 속으로 침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여기의 ‘나’는 ‘프로메테우스’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는 이미 제우스가 내리는 징벌을 받고 있는 코카서스적 상황에서 벗어나 있으며, 다른

11) 앞에서 언급한 시 『간』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나=토끼=프로메테우스를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다. 이는 시적 화자 “나”와의 대화적 거리를 알 수 있는 인칭 관계와 대상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들을 엄밀히 고찰하지 못하였으며, 윤동주가 저항 시인이라는 전제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유로 “목에 멧돌을 달고” 바다 속으로 침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3연에 나오는 “독수리”는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관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¹²⁾

1연에서 “나”는 “습한 간(肝)을 펴서 말리우자”,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라고 하며 스스로 다짐을 한다. 그런데 그 다짐의 장소, 간을 말리는 장소가 ‘햇빛 바른 바위’가 있는 “바닷가”이다. “바닷가”는 『토끼전』에 나오는 ‘토끼’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과 유혹(위험) 사이, 육지와 바다의 경계 지점이다. 당시 운동주가 읽은 것으로 보이는 김오성의 논문 『時代와 知性的 葛藤-프로메테우스의 事態』에서도 “바닷가”는 바위 위의 절벽에서 ‘프로메테우스’가 결박되어 제우스의 징벌을 받는 곳이다.¹³⁾ 결국 바닷가의 절벽 위에서 제우스에 의해 고통을 받던 ‘프로메테우스’는 신약성서 『마태복음 18장』과 관련된 죄목으로 “목에 멧돌을 매달고” 바다 속으로 침전하게 된 것이다. 시적 주체 “나”는 그러한 극적인 상황이 뒤엎혀 연출되는 ‘바닷가’에서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라고 결의한다. 그리고 “둘러리를 빙빙돌며 간을 지키자”라고 하며 독자의 동참을 호소하는 듯 ‘간’의 소중함을 다시 강조한다. 시적 주체 “나”는 “간”을 잃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경계 지점, ‘바닷가’에서 스스로 자기 “간”을 지키겠다는 결의로서 출현하고 있다.

시구 “코카서스 산중(山中)에서 도망해 온 토끼처럼”에서 시적 주체

12) 류양선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 시에 나오는 ‘독수리’가 프로메테우스와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견해를 반박하며, 성경의 구절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분께서 네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 주시어/ 내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 구나.”(시편 103장 5절)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이사야 40장 31절) 그러므로 그의 관점을 정리해 보면, “잘 말린 간”을 “여윈 독수리”에 받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화된 정신”을 제물로 삼음으로써 독수리와 같은 “영적인 젊음”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류양선, 앞의 논문, 461-463쪽.

13) 김오성의 글은 4단원에서 자세히 인용하여 논의할 것이다.

“나”는 위협에서 도망쳐 왔다는 점과 “간”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토끼전」의 “토끼”와 비슷한 입장에 서 있다. 하지만 ‘코카서스’와 ‘간’이라는 말에서 “프로메테우스”와도 관련되어 있다. “코카서스 산중(山中)에서”의 “에서”는 처소격 조사이므로 토끼의 탈출이 시작되는 지점이 “코카서스”라 할 수 있다. 코카서스 산중은 프로메테우스가 쇠사슬에 묶인 채 제우스가 보낸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토끼처럼”에서 비유격 조사 “처럼”을 사용하며 자기 입장을 말하는 시적 주체 “나”는 ‘토끼’와 유사한 입장이나 ‘토끼’와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 이 진술을 정리해 보면, 지금의 “나”는 용왕에게 간을 빼앗겨 죽을 고비를 벗어난 토끼처럼, 프로메테우스가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고 있는 “코카서스 산중(山中)에서” 도망쳐와 자기 간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의 간을 노리는 자는 제우스의 독수리이지만 그런 위협으로 ‘나’를 이끄는 자는 ‘프로메테우스’인 것이다.

시적 주체 “나”는 “거북이”, “독수리”, “프로메테우스”를 직접 호명하며 2인칭의 대화 상대로 삼고 있다. 이 시에서 ‘그들’의 발화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시적 주체 ‘나’는 지금-여기에 소환되어 있는 ‘그들’에게 말한 것이다. 답론 문법에서 ‘나’와 ‘너’의 관계는 같은 답론 공간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에만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시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들’의 입장은 “나”의 발화 전후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3인칭으로 언급된 토끼와 ‘나’는 시간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대화 상대인 ‘그들’에게 자기 태도를 분명히 말함으로써 자신이 서 있는 지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나’와 ‘너’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시적 주체의 ‘대화 상대’는 실제 시인의 실존적 상황에서 독자들과 함께 접하고 있는 타자를 상징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¹⁴⁾ 혹은 ‘그들’은 시인을 괴롭히는 내면의

14) 시작품 속에서 이 낱말들의 중요성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시작품에 말의 소명 의식을 돌려주는 것이며, 그리하여 시작품이 어떻게 그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타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의 정체성을 가늠하게 하는 “거북이”, “독수리”, “프로메테우스”의 성격은 시어들이 생성되고 있는 창작 당시의 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재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적 주체 “나”는 시인이 자신의 갈등과 방향을 야기하는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삶을 지향을 확정하는 가운데 정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 『간(肝)』이라는 한 편의 시 텍스트는 내재적 구조만을 살펴볼 때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으로만 접근해 볼 수 있었다. 이제 운동주가 자기 성찰을 재현한 시 전체의 흐름 가운데 주어진 시 『간(肝)』의 자리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3. 시 전체의 흐름과 시 『간(肝)』의 자리

운동주의 시작품이 전개되는 과정은 연희전문학교 입학(1938년, 22세) 이전과 이후의 생활, 일본유학(1942년, 26세) 등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운동주는 1945년(29세) 2월 16일 일본의 북강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근대적 교육제도 내의 학생 신분으로 대부분의 일생을 보냈다. 명동소학교, 은진중학교, 송실중학교, 광명중학교 시절은 시인에게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근대 지식을 섭렵하고 문학도로서의 꿈을 키워 가던 시기였다. 그의 외할아버지 김약연은 명동소학교를 세웠으며, 유학 자이면서도 안수를 받은 목사였다. 할아버지 윤하현은 교회 장로이며 명동에서 이름난 갑부였다. 아버지 윤영석은 명동학교 졸업, 북경과 일본 유학 등을 통해 신학문을 접하였으며, 특히 문학에 심취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운동주는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이미 학문을 통해 인

향해 있는지, 그리고 또 타자를 향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일이다. 왜냐 하면 말한다는 행위(parler)는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dire)이기 때문이다. 시작품의 지평은 어떤 ‘세계’이자 어떤 ‘대화 상대’이다. 미셸 콜로, 앞의 책, 236쪽.

격 완성을 추구하는 '자아 이상'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집안은 비교적 부유하였기 때문에, 시인은 가난의 어려움으로 학업 욕구가 좌절된 경우가 없이 순수한 동심을 내면에 간직하고 소년의 꿈을 키워가며 학문이 가리키는 진리의 세계를 탐구해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운동주가 북간도에서 보낸 성장기는 내면의 지평에서 자기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그는 기독교적 분위기의 가정, 학교, 마을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성인(聖人)으로서의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담은 성경은 그에게 삶의 가치를 가늠하는 준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 후, 서울에서 몸소 민족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자기 세계의 한계를 자각한다. 이 시기 운동주는 소학교와 중학교 시절에 형성된 자기 세계와, 타자에 의해 자기 세계가 대상화되는 현실 사이에서 자기 분열을 체험한다. 하지만 그는 치열한 의식적 노력으로 지식체계나 이념 혹은 자기 욕망의 세계를 초월한, 자유롭고 진실된 의식 지평을 찾아낸다. 그가 시에서 말하는 “또 다른 고향”, “별”, “최후의 나” 등은 그러한 지평과 관련된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연희전문학교 시절 운동주는 저항적 민족주의, 기독교적 민족주의¹⁵⁾, 사회주의, 근대 자본주의, 제국주의 등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타자와 자신을 이해해가면서 진정한 자기 주체의 근거를 시작품에서 구축해 갔다. 그가 일본유학을 선택하고 더 넓은 근대 지식의 세계로 나아간 것도 이러한 삶의 추구 과정이었다.¹⁶⁾ 시인은 각자의 진실을 호소하는 타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

15) 운동주 역시 당대 현실과 교섭해나가는 과정에서 대타자의 결여(한국기독교의 궤절)와 동시에 자신이 전적으로 대타자의 호명에 종속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와 갈등한 뒤, 그러한 종속을 넘어서 자기행위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독자적 인 윤리적 자세를 개척하고 이를 실천하게 된다. 이런 점이야말로 운동주의 시를 특정 종교에의 종속(알튀세르식으로 말하자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의 종속)에서 벗어나게 만들며, 그의 시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허정, 앞의 논문, 594쪽.

16) 시인은 산문 「종시(終始)」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창시절'의 체험을 정거장으로 이어지는 '기차 여행'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종점을 시점

기 삶의 한계와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근원적 삶의 성찰을 통해 얻게 된 자기 확신의 길을 굳게 걸어간 것이다.

용정의 은진 중학교 시절 운동주는 1934년(19세) 12월 24일 하루에 『초한대』, 『삶과 죽음』, 『내일은 없다』 등 세 편의 시를 지었다. 이 시들은 운동주가 시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자기 주체를 기투(企投)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이 시기에 창작된 운동주의 동시들은 순수한 감각적 체험을 소재로 하고 있다. 기독교와 유년 시절의 체험에서 형성된 자기 세계는 운동주의 시적 추구를 이끌어가는 근간이 되었다. 운동주에게 동심(“어린 마음”)은 단순히 어른과 구별되는 아이들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의식 지평을 의미하며, 나아가 기독교적 진리(로고스)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시인으로서 인간이 가진 본성을 옹호하며, 자기 몸을 태워 어둠을 몰아내는 “초한대”처럼, 자기 신념의 실천으로부터 야기되는 자기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시인의 희생적 태도는 기독교인이며 시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자기

으로 바꾼다. 내가 내린 곳이 나의 종점ियो, 내가 타는 곳이 나의 시점이 되는 까닭이다. 이 짧은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묻는 것인데 나는 이네들에게 너무 나도 피상적이 된다. 나의 휴머니티를 이네들에게 발휘해낸다는 재주가 없다. 이네들의 기쁨과 슬픔과 아픈 데를 나로서는 측량한다는 수가 없는 까닭이다. 너무 막연하다. …… 그럴수록 자기 하나 간수하기에 분망하나 보다.

이제 나는 종시를 바꿔야 한다. 하나 내 차에도 신경행, 북경행, 남경행을 달고 싶다. 세계일주행이라고 달고 싶다. 아니 그보다 진정한 내 고향이 있다면 고향행을 달겠다. 다음 도착하여야 할 시대의 정거장이 있다면 더 좋다” 운동주, 『운동주 전집』, 문학과지성사, 2007. 160-161쪽.

- 17) 지금껏 알려진 운동주의 첫 작품들은 1934년 성탄전야에 쓴 세 편— 초한대, 삶과 죽음, 내일은 없다—인데 모두 성탄전야라는 특수한 정황에서 고백적 화자의 목소리와 태도가 크게 부각되어 있다. 앞선 두 작품은 예수와 “위인들”에 대한 모방욕망(R. 지라르의 용어 -인용자 주)을 드러내고 있고 마지막 한 편은 “래일” 즉 미래의 환상에 대한 경계를 담는다. 이제 막 세상에 자신의 입장과 각오를 드러내는 시인의 표정이 담겨 있다. 구모룡, 『운동주의 시와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성』, 『현대문학이론연구』 43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34쪽.

이해의 지평은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고 다른 세계관을 가진 타자들을 만나면서 더욱 확고하게 드러난다.

시인은 연희전문학교의 입학과 함께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품었던 포부를 마음껏 펼쳐보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새로운 길」(1938. 5.10.))라고 노래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기대는 곧 좌절되고 만다. 북간도 시절에서부터 주체 형성의 토대가 되어 왔던 자기 세계는 실제 부딪힌 사회 현실과 현저한 괴리가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시인은 이제 자기 세계가 타자화 되는 현실에서 왜소해진 자기 주체를 대상화하며 타자들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발에 터분한 것을 다 빼어버리고/ 황혼이 호수 위로 걸어오듯이/ 나도
 사뿐사뿐 걸어보리까? … 오늘따라/ 연정, 자홀(自惚), 시기, 이것들이
 자꾸 금메달처럼 만져지는구려//
 하나, 내 모든 것을 여념없이/ 물결에 써서 보내려니/ 당신은 호면(湖面)
 으로 나를 불러내소서//

- 「이적(異蹟)」(1938. 6. 9.)의 일부

시인은 용정 시절 꿈꾸어오던 것과 다른 서울(경성)이라는 낯선 환경을 대면하면서 기존에 사유해 왔던 자기 세계와 다른 모습으로 은폐되어 있던 자신을 발견한다. 즉 그는 지금의 자신이 사랑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연정(戀情), 자홀(自惚, 자기도취), 시기(猜忌)”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자각한다. 그리고 시인은 예수가 “물위를 사뿐 사뿐 걸어”간 것처럼, 자기 위선으로 가득 찬 지금의 시간을 가볍게 던고 일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시인은 서울 생활에서 대면한 타자들로 인하여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자기 세계의 주체가 자아 도취(자홀)에 빠져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연정과 시기(원죄와 같은 것)가

자기 내면에도 상존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시 『사랑의 전당』(1938. 6. 9.), 『소년』(1939.), 『눈 오는 지도』(1941. 3. 12.)에 나오는 여자 ‘순이’는 이성(異性)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시인이 발견한 자기 내면 속의 연정(戀情)은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태초의 아침”에 “뱀과 함께/어린 꽃과 함께” 마련된 사랑과 독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것이다. 『태초의 아침』(1941. 5. 31.), 『또 태초의 아침』(1941. 5. 31.) 그래서 시인은 내리는 눈이 일상의 풍경을 지워가듯이 자기 내면에서 욕망의 흔적들을 지워가는 시간 위에서 있다. 『눈 오는 지도』(1941. 3. 12.) 청년에게 연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었으나 시인은 그러한 욕망마저도 마음 속에서 억압하고 숨기거나 혹은 충족시키려는 행동으로 나아가지도 않는다. 단지 가만히 응시하는 내면의 시선 아래 소멸시켜 갈 뿐이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시인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 혼자 살게 되고,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 새로운 친구들, 연희 전문의 교육 환경 등을 새롭게 접하면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만나게 된 타자들 또한 자기 세계의 존재로서 시인과 같은 결핍을 가진 존재였다. 시인은 타자로부터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이해로부터 타자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인은 자기 주체의 존재방식을 일반화하는 인간 사랑으로 나아간다.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 그때 세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 나는 호주머니를 뒤지었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 그리고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 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 『투르게네프의 언덕』(1939. 9.)의 일부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으로 가자.//

- 「또 다른 고향」(1941. 9.)의 일부

산문시 「투르게네프의 언덕」은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거지」의 전개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투르게네프의 문학은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널리 소개되어 경향문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¹⁸⁾ 그러므로 운동주가 이 시에 차용한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거지」는 작품의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 당시 독자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운동주는 이 시에서 투르게네프의 산문시 「거지」를 차용하면서, 당대 현실의 경향문학이라는 타자가 지향하는 진실을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의 과정을 보여준다.

운동주는 시인으로서 타자를 비판하거나 무조건적으로 포용하기 이전에 타자의 실체를 먼저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종교적 신념의 실천과 관련된다. 시인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 이전에, 항상 대상을 바라보는 자기 의식의 확실성을 확보하려는 자기 성찰적인 태도를 항상 견지하고 있다.¹⁹⁾ 시

18) 당시(1920년대 -인용자 주) 투르게네프라는 러시아 작가에 대한 국내 문단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떠했을까? 많은 이들은 투르게네프를 유려한 문체, 섬세한 감각,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서구파적 자유주의자로서 자연과 사랑을 노래한 순수예술작가이자 농노 문제, 신구갈등, 계몽, 혁명을 노래한 경향적 작가로 평가하고 있다. ...

1925년 <개벽> 12월호에 실린 박영희의 “준비시대에 있는 빠사로프의 부정적 정신”은 『아버지와 아들』(투르게네프의 소설-인용자 주)에 대한 작품론이다. 주인공 바자로프의 허무사상을 부정적 진리, 개인주의, 과학적 학리 등으로 항목화하여 실지 작품내용을 예증하면서 논의하는 이 평론에서 박영희는 바자로프의 부정적 정신과 허무사상을 통해 인류 해방과 반항정신을 음미해 보자는 작품 소개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는 투르게네프의 소설이 지닌 경향성을 카프 문학예술론의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병용, 「투르게네프 산문시 “거지”와 운동주의 “투르게네프의 언덕”」, 『슬라브학보』 제21권 제3호, 2006, 189쪽.

19) (시 「자화상」(1939. 9.)에서 보면 -인용자) 시인은 우물에 비친 이중 자화상을 통해 세계 안과 세계 밖을 투사함으로써 자기에 매혹된 나르키소스처럼 우물 속

인은 경향문학의 관점에서 소외 계층의 실상을 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만난 “거지 소년들”은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있었으며, 외로운 자기와 달리 그들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인은 자신이 가진 “돈, 시계, 손수건” 등을 그들에게 전해 주는 행위가 부질없음을 자각하고, “질어가는 황혼” 속에 넘어가려던 “고갯길”에 혼자 서서 그들이 이미 지나간 빈 언덕을 바라만 본다. 시인은 가난한 소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아직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자기 세계의 삶을 나름대로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저들은 자기 삶에 대해 시인보다도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타자가 전해주는 지식과 이념에서 인간의 근원적 존재 방식과 삶의 지향을 확정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 「또 다른 고향」에 나타난 시적 주체 ‘나’의 내면은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과, “어둠을 짓는 개”에게 쫓기는 “나”와, “백골 모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영혼” 등 세 개의 내면 영역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면의 자기 분열은 언젠가 거주했을 “아름다운 고향”에 살던 “나”의 존재가 기존에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 “지조 높은 개”²⁰⁾의 하소연에 공감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비판과 다수로

으로 매몰되지 않는다. 시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고 들여다보면서 객관화함으로써 우물에 잠식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공감과 투사의 자아방어기제는 하나의 전략으로서의 상징계의 영역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시인의 자화상은 나 자신을 타자화하므로 자기라는 밖에서 자아라는 안을 둘러다보며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성찰이 가능해 진다. 권성훈, 「일제강점기 자화상 시편에 대한 정신분석」, 『한국학연구』 4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55-56쪽.

20) 윤동주에게 괴로웠던 것은 당대의 사회가 넓은 의미에서 자기 완성의 추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이었고, 그 결과 그는 현상 타파를 요구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윤동주는 직접적인 의미의 애국심과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 사이에 갈등을 느낀 경우가 적지 않았다. …… 내 생각으로는 ‘지조 높은 개’는 아이러니컬한 뜻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즉 한 쪽으로 그것은 지사적

부터의 자기 소외를 감수하고 “또 다른 고향”을 자기 주체가 거주할 근거로 삼고 있다. 어둠 속의 별빛을 지향하는 시인의 삶은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와 같고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하며 지냈던 친구들, 자연 속에 살아가는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등과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등과 함께하는 시세계로 나아간다. 『별헤는 밤』(1941. 11. 5.) 시인은 자기 의식의 지평에서 은폐된 모든 것들을 낱낱이 펼쳐 봄으로써 확고한 삶의 지향을 결의한다. 시 「간」(1941. 11. 29)은 이처럼 자기 주체를 정립해나가는 과정의 극단에서 형성된 시적 발화임을 알 수 있다.

시인의 일본 유학은 내적 갈등 끝에 확고해진 자기 신념을 생활에서 실천해나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은 일본제국주의의 물리적·정신적 폭력에 맞서는 대안적 이념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서도 자기 의식의 근원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인의 천명임을 확신한 것이다.²¹⁾ 운동주는 일본 유학 후 동경의 입교(立教) 대학 재학시

인 인물로서 어둠의 증인이 되는 사람을 가리키고 다른 한 쪽으로 그것은 지사는 지사이되 ‘어둠을 짓는’ - 즉 여기서는 어둠의 소리만을 낸다는 뜻에서 ‘어둠을 짓는’ 일 이외에는 하늘의 소리도, 아름다운 혼의 세계도 알지 못하는 우직한 존재, 아직 사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동물적 존재를 가리킨다. 김우창,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 『운동주』, 문학세계사, 1995, 200쪽.

21) 운동주가 유학을 통해서 얻고자 한 사상적 지평은 그가 소장한 이론서적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운동주의 유품으로 남은 서적 중에는 『체험과 문학』(빌헬름 딜타이)과, 『문학론』, 『시학서설』, 『사상의 운명』(폴 발레리), 등이 있다. (송우혜, 앞의 책, 258쪽. 참조.) 이 책들 속에 담겨 있는 동시대의 서구 사상은 이념에 사로잡힌 세계상의 주체를 넘어서 펼쳐지는, 감각 체험의 실존적 지평과 관련되어 있다.

왕신영은 운동주의 소장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어 소장 도서의 구입 시기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국내에서 출판된 몇권의 시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적들, 특히 문학비평서적들과 사상서들은 1939년에 구입된 高沖陽造의 『藝術學』을 기점으로 하여 1940년, 41년에 집중적으로 구입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순수 문학작품집과 저자가 일본인인 서적을 제외한 일곱 권의 비평서중 여섯 권을 차지하고 있는 발레리와 티보데는 『예술학』에서 최근의 이론 경향으로서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었고 딜타이는 <딜타이의 방법비판>이라는

(1942년) 『흰그림자』(4.14.), 『흐르는 거리』(5.12.), 『사랑스런 추억』(5.13.), 『쉽게 씌어진 시』(6.3.), 『봄』(?) 등의 시 다섯 편을 남겼다.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
하던 수많은 나를/ 하나, 둘, 제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하루 종일 시름없이 풀 포기나 뜯자//

- 『흰 그림자』(1942. 4. 14.)의 일부

나는 무얼 바라/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쉽게 씌어진 시』(1942. 6. 3.)의 일부

시 『흰 그림자』의 시적 주체 ‘나’는 내면의 갈등과 자기 분열을 오랫동안
안 조장해온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거주하던 본래
장소를 찾아내어 되돌려 보내며, 더 이상 허상의 자기 주체성에 집착하
지 않는다.²²⁾ 시인은 타자와의 대면 속에서 형성되는 괴로움들에 마음

제목으로 이 저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발레리가 당시에 폭넓게 소개되
었던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티보데와 딜타이가 저자인 高沖陽造와 근거리
에 있던 잡지에 소개되었던 점들을 고려하면 『藝術學』이 운동주가 새로운 知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데에 중요한 자극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 그중에서도 (독서) 흔적이 가장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藝術學』과 『近
世美術史』이다. 왕신영, 『소장 자료를 통해서 본 운동주의 한 단면 - 소장도서,
특히 『예술학』을 축으로 하여』, 『비교문학』 27권, 한국비교문학회, 2001, 261쪽.
22) 아님-나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 속에서 아님-나를 발견하는 것이 변증법이

을 쓰지 않고 “하루 종일 풀 포기나 뜯는” “신념이 강한 의젓한 양”처럼,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자기 세계의 본래성을 회복하고 그 삶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 시의 시적 주체 ‘나’는 당위적 규범들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하며 쫓기던 사유 행위를 놓아버림으로써 다가오는 새로운 주체의 지평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쉽게 씌어진 시」에서도 이어진다. 시인은 우리 민족을 식민 통치하는 적국인 일본에서 가족의 땀이 뻘 학비로 공부하는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되살아나는 괴로움으로 인해 다시 자기 성찰의 심연으로 “침전”한다. 그것을 통해 희미해지는 자신의 신념을 되살려내고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운동주는 현사실성에 토대를 둔 욕망과 이념들의 세계를 본래 자리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의식 지평 어느 곳에 상존(常存)하지만 망각해 버린 내면의 “근원적 고향”을 상기하면서 근대적 주체의 근원적 토대를 만들어 간다. 시인은 내적인 인고와 치열한 탐구 끝에 “최후의 나”를 대면한 것이다. 얼었던 “시내”가 녹아 흐르면서 “가까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추꽃”을 피우는 봄처럼, 혹은 삼동을 견디고 피어나는 “풀포기”(「봄2」(1942.))처럼, 시인은 이제 내면의 의식 지평에서 상상하게 되살아나는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차 있다.²³⁾ 시

지만, 이런 교환이 가능했던 까닭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근저에 다시 보다 근원적인 동일성을 상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변증법이란 오직 근원적인 자기동일성을 전제한 뒤에만 가능한 논리인 것이다. 하지만 아닌-나가 나 속에서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제각기 다른 고향에서 온 것인 경우 그런 근원적 자기동일성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김상봉, 「운동주와 자기의식의 진리」, 『코기토 10권』,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111-112쪽.

23) 일본 유학 이전에 쓴 시에 나타나는 방은 방으로 돌아오는 구심적 공간이거나 또 다른 공간을 향해 쫓겨가야 하는 방이었다고 하면, 동경에서 보이는 방은 방으로부터 어두운 세상을 향해 등불을 켜고 나아가는 원심력적인 의지가 확인되는 공간이다. 이는 수평공간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의 확대는 「봄 2」에 오면, 수평 공간의 확대와 함께 수직공간으로의 비상까지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주 시인의 공간인식은 일본유학 이전의 시에서 보여주었던 공간인식과는 변별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공간인식은 그가 일본이라는 낯선 현실 공간에

인은 현실 지평의 “가시대 속에서 투명히 비치다 사라지는 비가시대의 신비에 눈뜨기” 시작하였고, 지평의 경계에서 ‘혼적’으로만 드러나는 “초월적 영역(부재하는 ‘절대 신’)”을 더욱 공고히 체화해 나갔다.²⁴⁾

윤동주 시의 전개 과정은 그의 삶에서 커다란 전환의 계기가 되는 연희전문학교의 진학 전·후의 시기와 일본 유학 시절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북간도 시절 시인은 순수한 동심의 체험과 학교 교육 과정에서, 기독교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기 세계를 정립해갔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 세계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에서 대면하게 된 타자들의 세계와 부딪힌다. 자기 분열의 과정 속에서 시인은 지식과 이념을 넘어선 새로운 지평을 발견한다. 이러한 시기에 창작된 시 「간」은 실제 시인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외적 갈등을 엄밀하게 직시한 끝에 새로운 삶을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유학을 결행하는 윤동주는 타자와 자기 세계의 한계를 현실의 전체 지평 위에 조망하면서 근원적 자기 동일성의 토대를 확보해나갔던 것이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윤동주에게 시 창작의 순간은 더욱더 확장된 의식 지평 위에서 새로운 주체가 탄생하는 사건이었고, 그 시작품은 이후에 전개 되는 삶의 준거가 되었던 것이다. 연희전문학교 시절 시인은 자신도 ‘프로메테우스’, ‘거북이’와 같은 욕망의 일면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타자들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이처럼 치열한 의식적 노력을 거친 후 욕망으로 제한된 시계(視界)를 초월하여 현실 지평 전체를 조망하면서 새로운 주체 ‘나’의 입지를 상정한 것이다. 즉 윤동주는 시 「간」의 창작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확고한 주체를 결의할 수 있었다. 「서시」, 「십자가」, 「별헤는 밤」 등의 시에 나타난 시적 주체는 종교적·문학적인 상징을 소재로 하여 자기 의지를 드러냈다면, 시 「간」의 시적 주체

서, 자신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나온 현실대응력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남승우, 앞의 논문, 185쪽.

24) 미셸 콜로, 앞의 책, 53-54쪽.

는 현실 지평의 경계에서 드러나는 확고한 자기 주체성을 명증하고 있다. 그 결과 이후에 창작된 「흰 그림자」, 「사랑스런 추억」, 「쉽게 씌어진 시」 등에 나타난 시적 주체는 일본 유학의 혼란스런 일상에서 시 「간」에서 확보한 자기 확실성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자기 분열의 상황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4. 시 「간(肝)」의 '시적 주체'와 문화적 맥락

이 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 시에서 차용된 「토끼전」, 「프로메테우스」, 「마태복음」 18장, 독수리에 관한 성경 구절의 내용을 당대의 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자.

「토끼전」은 출판되어 현전하는 것 중에서 차이를 보이는 정도에 따라 대략 5종의 텍스트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방각본(坊刻本)으로는 <경판본>(1908년 전후) 1종과 <완판본>(완서신간, 1897/1916) 2종이 있으며, 활자본(活字本)으로는 <토의간>(박문서관, 1916), <불노초>(유일서관, 1912), <별주부전>(신구서림, 1913)”²⁵⁾ 등이 있다. 이 중에 방각본은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용왕과 신하들이 진행하는 어전(魚殿) 회의에서 탈출하는 토끼의 지혜를 부각시키면서 조선 후기 중앙집권 사회의 부패를 풍자하는 전통적인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활자본은 당시 독자를 고려하여 토끼를 폄하하고 별주부를 충신으로 묘사하는 등의 새롭게 변형된 서사구조를 만들어 갔다.²⁶⁾

25) 최진형, 「출판문화와 <토끼전>의 전승」, 『판소리연구』 25집, 판소리학회, 2008, 311쪽.

26) “<신구서림본>이 긍정하고 있는 대상이 토끼가 아니라 자라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이 텍스트의 제목이 <별주부전>인 것은 이미 작품의 초점이 자라에 맞춰져 있음을 암시한 것이며, ‘충성이 지극’한 자라에게 ‘신명이 굶어 살’핍이 있으리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자라를 부각하기 위해서 토끼는 상

방각본의 경우, 토끼를 놓친 자라는 바위에 부딪혀 자살하고 용왕도 죽게 되어 중앙집권 체제 속의 탐관오리들에게 시달리는 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신구서립본> 『토끼전』은 똑같은 상황에서 도인이 등장하여 자라에게 선단을 내린다. 그래서 용왕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 자라는 충신으로 인정받아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그런데 이렇게 변형된 『토끼전』의 서사구조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형성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하게 기획된 대중문화라 할 수 있는데, 천왕 중심의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운동주는 당시 문학 사회에서 변형되어 유통되는 『토끼전』의 서사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시 『간』을 창작하였다고 짐작된다. 이처럼 시창작 당시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시인은 이 소설을 접한 다수의 대중들에게 ‘용왕과 자라’의 군신 관계가 은연중에 바람직한 인간 관계로 비춰지는 것에 반발하여,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희에 안 떨어진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자기 간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거북이”는 당대의 권력 구조 내에서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그리스의 작가 헤시오도스(hesiodos, BC. 8C.)와 아이스킬로스(aeschylus BC. 5C.)가 창작한 두 종류의 희곡이 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Theogony)』와 『일과 날(Works and Days)』에 나오

대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바, ‘간사’하다든가 ‘무단히 허욕’을 발하며 ‘아모 덕’도 없이 ‘명리를 탐’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토끼전> 작품군에서 토끼가 이처럼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논문, 330쪽.

“<신구서립본>은 <별주부전>이란 제목으로 1913년 9월에 초판이 발행되었다. 이후 같은 곳에서 1917년 6월에 4판이 발행되기에 이르렀고, 1925년에는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토의간>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기도 하였다. 활자본으로는 유일서관에서 초판이 발행된 <불노초>와 함께 가장 많이 간행(刊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면에서 <신구서립본>은 <토끼전> 작품군 전체에서도 매우 독특한 편에 속하는 면모를 보여주는데, 특히 초판의 저작자가 이해조(李海朝)로 되어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신구서립본>의 인기와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위의 논문, 325쪽.

는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 주었으나, 동시에 노동과 출산의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때의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정적인 성격으로 묘사된다.²⁷⁾ 반면에 아이스퀼로스의 『결박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Bound)』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해방을 위해 부당한 제우스의 권력에 저항하는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다.²⁸⁾ 아이스퀼로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자기시대에 맞게 각색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다. 그는 “참주정 하에서 소년기를 보냈고 청년기에는 참주정 붕괴 후 귀족들의 권력 투쟁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는 “아테네 사회에 새로운 자유의 정신을 전하기 위하여”, “힘과 폭력에 대항하는 프로메테우스를 그렸던 것이다.”²⁹⁾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근대의 지성인들도 아이스퀼로스가 재현한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영웅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간 것으로 보았다.³⁰⁾ 운동주는 이러한 서구 문화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프로메테우스의 두 유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당시 지식인들이 이해한 프로메테우스의 인간상은 채만식의 희곡 『제향(祭饗)날』(1937)에서 확인할 수 있다.³¹⁾ 이 희곡의 주인공 “상인이

27) 김기영,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수용과 변용」, 『서양고전학연구』 45권, 한국서양고전학회, 2011, 42-43쪽. 참조.

28) 백경옥, 「아이스퀼로스의 프로메테우스」, 『철학논총 34권』, 2003, 302쪽. 참조.

29) 위의 논문, 303쪽.

30) 진보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졌던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서양 저자들은 프로메테우스 신화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전면에 부각시켰고, 20세기로 갈수록 프로메테우스 신화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작가들이 나타났다.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화소를 차용한 작품들은 괴테의 미완성 희곡 『프로메테우스』(1773), 니체의 「비극의 탄생」 9장, 영국의 여성작가 메리 울스턴크라프트 셸리(1797~1851)의 소설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1818), 카프카의 소설 『프로메테우스』(1917), 장 툴라르(Jean Tulard)는 「나폴레옹 신화」(1971) 등이 있다.(백경옥, 「프로메테우스의 책략과 문명화의 문제」, 『서양고전학연구 33권』, 한국서양고전학회, 2008, 46-47쪽. 참조.)

31) 『제향날』은 1937년에 『조광』에 발표된 3막 7장의 작품이다. 제1막은 남편인 성

전해주는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바로 성배, 영수의 행동이 진정 의로운 것임을 말하기 위한 상징적 장치”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대극 속에 차용된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는 “인간의 보편적 사고나 감정을 추구하여 인간행위의 한 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그것을 향유하는 당대의(1930년대의 조선 -인용자) 정치적·사회적 담화의 모델로서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³²⁾

윤동주가 직접 스크랩해 놓았던 김오성의 논문 『時代와 知性的 葛藤-프로메테우스의 事態』(『조선일보』, 1939.1.22.~2.2.)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도 또한 아이스킬로스의 희극에 나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³³⁾

배의 제삿날, 외할머니 최씨가 어린 영오에게 동학란 때 접주로 활약하다 처형당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2막은 기미 독립운동 당시 시위를 주도하다 실패하여 중국으로 망명한 성배의 아들 영수의 이야기이다. 3막은 영수의 아들 상인이 영오에게 들려주는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행동이 의로운 것임을 암시하고, 상인 역시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중략)...

프로메테우스: (눈을 치뜨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의를 행한 보값음(報果)! / 의를 이룬 보값음은 영겁의 고초! 죽지 아니하고 영겁토록 받는 고초! 사나운/ 수리가 살을 쪼아먹고 까막까치는 눈을 파먹고 귀를 떼어먹고 그러고도 끊이지 않는 극형! (천둥소리 우르릉거리고 번개를 친다. 폭우가 내린다. 폭우 그치고 / 강풍이 분다. 강풍이 그치고 눈이 내린다.)

프로메테우스: (눈이 내릴 때에) 오오 그래도 나는 의를 이루었노라. 뉘우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상인의) 외할아버지인 성배가 그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뜻을 전할 때의 그 비장함과 일맥상통한다.

김상열, 『채만식 희곡의 현실주의적 성격에 대하여-『제향날』, 『당랑의 전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집, 1991, 329-331쪽.

32) 위의 논문, 330쪽.

33) 류양선은 윤동주가 김오성이 쓴 논문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시 『간』의 화소에 적용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윤동주의 전체 시에서 형성된 시적 지평에서 볼 때 편협한 판단임을 알 수 있다. 당시 근대 지식인이 가진 의식 지평에 대하여 윤동주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김오성이 이 논문을 쓴 뒤 얼마 후 『원리의 전환』(『인문평론』, 1941. 2)을 써 일제에 영합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의식 지평은 활자에서 형성된 기표 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

時代가 知性 앞에 屈服하느냐? 知性이 時代에 屈服되느냐? 그것지 안 으면 兩者가 서로 妥協할 것이냐? …(중략)… 時代와 知性의 葛藤 이것 을 눈 앞에 그리면서 聯想되는 것은 古代 希臘의 三代 悲劇 作家 中의 一人인 에스키르스의 戲曲 「結縛된 프로메듀-스」이다. 大神 제우스로부터 불(火)을 훔쳐다가 人間에게 준 프로메듀-스는 人間의 생활 여러 가지 방편을 가르쳐서 人間의 一 大 恩人이 되었으나 그로 因하여 프로메 듀-스는 大神 제우스의 憤怒를 사서 바다에 臨한 斷崖에 쇠사슬로 얽어 다라매우게 되었다. 그러나 프로메듀-스는 決코 後悔하지를 안었으면서 도 한갓 제우스의 橫暴을 打罵해 止안는다. …(중략)… 허나 正義의 鬪士, 人間의 戀人인 프로메듀-스는 終乃 제우스의 罰을 입어 霹靂소리 가 振動하는 斷崖의 崩壞와 함께 深海中에 기피 떨어지고 마는 것이 다.³⁴⁾

김오성은 이 글에서 당대의 지성인들이 시대의 모순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제의 언론 탄압을 고려하여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중점적으로 논하면서 백철의 논문 「時代的 偶然的 受理 -事實에 대한 精神의 態度」(『조선일보』, 1938. 12.2.~12.7)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 글에서 프로메테우스(프로메듀-스)는 제우스의 횡포(일제의 억압)에 맞서는 지성인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지성인이 “大神 제우스의 憤怒를 사서 바다에 臨한 斷崖에 쇠사슬로 얽어 다라매우게” 된 프로메테우스처럼, “終乃 제우스의 罰을 입어 霹靂소리가 振動하는 斷崖의 崩壞와 함께 深海中에 기피 떨어지고 마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프로메테우스가 고통을 겪으면서도 “絶大의 權威, 제우스의 神罰에는 絶대로 屈

을 뿐이며, 자기 의식의 지평에서 지식이 가리키는 진리의 확실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운동주가 당대 지식인들의 태도에 회의적인 것은 단순히 지조와 변절의 문제로 판단되는 흑백논리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자기의식의 확실성을 마련하지 못한 근대 지식인의 한계를 직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운동주 자신이 지식인으로서 당시에 봉착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34) 김오성, 「時代와 知性의 葛藤-프로메듀스의 事態」, 『조선일보』, 1939. 1. 22.

服치 안흔” 것은 “제우스 以外の 새로운 偉大한 『必然의 힘』”³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오성은 역사의 필연적인 힘이 항상 “정의의 투사”인 지성인의 편에 서 있다고 역설한다.

백철은 1937년 7월에 시작된 중일 전쟁을 “東洋史가 非常히 飛翔한 다”고 평가하였다. 이를테면 그는 “이번 事變에 依하여 北京, 上海 南京, 徐州, 漢口 등이 連次陷落되는 報道와 接하고 또는 實寫 等を 통하여 支那의 모든 封建的 城門이 陷落되는 光景을 눈 앞에 볼 때에 우리들의 視野가 寬하게 擴어지는 異常한 興奮이 내 一身을 戰慄케 하는 瞬間이 있다”³⁶⁾라고 하며, 이러한 당대의 사태를 “偶然과 事實 以上の 必然과 進歩”³⁷⁾의 수리(受理)로 보았다. 김오성은 당대 현실에 대한 백철의 이러한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

금일의 제우스(우연적 사태)는 前日의 希臘의 寡頭政治 時代의 제우스보다 몇 배나 더 頑強하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永續的인 것, 또는 絶對的인 것으로까지 斷定하려는 氣勢조차 없지 않다. 그리고 今日의 프로메두스(정신, 지성)는 前日의 것처럼 純粹치 못하다. 그 동안 너무나 不純한 要素를 많이 攝取하고 있다. 때로는 姦淫도 하고 때로는 盜賊까지 생긴 듯하다.³⁸⁾

김오성은 일본의 제국주의가 동양의 평화를 깨뜨리고 긴장된 전시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인간이 가진 “영속인 것, 또는 절대적인 것”을 조금도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이스퀼로스의 희곡에 나오는 제우스보다도 “몇 배나 더 頑強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백철과 같은 지성인들에 대하여 “불순한 要素를 많이 섭취”한 “금일의 프로메두스(정신, 지성)”라고 비판한다. 그는 “時代와 知性的 葛藤은 知성이 時代(偶然的 事態)

35) 위의 글.

36) 백철, 『時代的 偶然的 受理-事實에 대한 精神의 態度』, 『조선일보』, 1938. 12. 6.

37) 위의 글, 12. 7.

38) 김오성, 앞의 글.

를 歴史的 時代(必然)에 까지 高揚시킴으로써만 和解될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서 꺾이고 만다.³⁹⁾

김오성은 중·일 전쟁을 옹호하는 글을 신문에 게재한 백철에 대해 타락한 “프로메테우스”라고 비판하였으나 그의 주장도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당대 지식인들의 논의들은 구체적인 현실 인식을 토대로 형성된 주장이 아니라 지식 체계나 집단의 이념으로부터 비롯된 피상적인 현실 이해에 그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채만식의 희곡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자를 ‘프로메테우스’로 그리고 있었다. 이념의 노선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당대의 지식인이 논의하는 담론들은 민중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고 있었다.⁴⁰⁾ 운동주는

39) 그러나 김오성은 뒤에 『원리의 전환』(『인문평론』, 1941. 2)을 쓰면서 일제의 신체제론에 영합하게 된다. 운동주는 김오성의 이 글도 읽었을 터인데 오히려 <간>을 썼으니, 운동주야말로 일제 말기에 있어서 지성 중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류양선, 앞의 논문, 453쪽.

40) 일본 도쿄의 유학생을 중심으로 간행된 잡지 『학지광』(1914.4.~1930.4.)에는 이미 투쟁적 행동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는 세계관이 나타나 있다. “다이쇼 시대에 수용된 베르그송 철학을 위시한 생철학은 물질문명, 기계론적 합리주의와 사회 진화론에 근거한 우승열패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진화론적인 인식은 현실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였다. 개조론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인들은 여전히 사회진화론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1920년대에도 여전히 실력양성론이 주창되고 인종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사회진화론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안지영, 「사회진화론에 대한 비판과 ‘생명’ 인식의 변화-『학지광』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8』, 한국현대문학회, 2012, 107-108쪽.

3·1운동과 광주학생사건에서 행동주의의 한계를 체험한 청년들이 모여 평양에서 간행한 『斷層』(1937.4.~1940.6.)의 논조는 현실에 토대를 두지 못한 이념에서 야기되는 지식인의 주체성 상실과 아픔을 다루면서 맹목적 행동을 강요하는 이념의 허상을 비판한다. “단층과의 문학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과는 별도로, 삶의 목적성을 정향하는 ‘信念’이나 ‘熱情’의 消盡이라는 상태를 문제 삼는 태도가 나타난다. 때문에 단층과의 문학은 ‘행동에의 강요’ 시대를 통과하며 자각한 ‘무위예의 의지’를 시대적인 시대적 저항의 태도로 견지하려는 긴장 상태를 보여주며, 이는 ‘불안의 문학’이라 일컬을 수 있는 자아와 세계의 균형 감각에 대한 자기 성찰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정주아, 「不安의 문학과 轉向時代의 균형

학생의 신분으로서 이러한 당대 지성인들의 간곡한 호소에 마음이 동조되어 그들의 주장을 실천해야 한다는 내적 강요에 쫓겨 왔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인은 실천으로 나아갈 정도로 그들의 신념에 대한 확실성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당대 지성인들의 담론들은 현실의 명확한 대안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적 갈등과 헛된 희생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대의 글들에서 볼 때, 윤동주가 시 『간』에서 말하는 “프로메테우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시대의 중심에 서고자 하였지만 사유의 근원적 토대가 없는 자기 한계를 드러내는 지식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 『간』의 시적 주체 “나”는 “프로메테우스”에 의해 그의 신념을 강요당하며 쫓기는 자에서 벗어나, 냉철한 시선으로 현실의 전체 지평을 조망하며 지식인의 한계를 심판하는 자로 거듭나고 있다. 6연에서 보면 시인은 “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며 프로메테우스의 한계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불(로고스)’을 훔쳐와 인간 세계를 밝히려 하였으며 그러한 자신의 행위가 정의라고 믿었으나, 자기 것이 아닌 신의 것을 훔쳐왔으므로 은연중에 죄를 짓고 만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시의 주제가 집약되고 있는 시의 마지막 연에서 좀 더 확실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이 프로메테우스의 화소와 관련하여 신약성서 『마태복음 18절』을 차

감각], 『어문연구』 39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335쪽.

『인문평론』(1939.10.1.~1941.4.1.)의 <구리지갈(求理知喆, critical)>난(欄)은 익명의 필자가 당대 비평에 대하여 비평하는 메타-비평을 실었다. 한 예를 들면, 당시 비평가인 “김오성에 대한 비판은 신랄하다. “三木淸의 조박을 씹던 김오성 씨”(『인문평론』(1940.1.) -인용자 주)라는 표현은 당자에게는 대단히 불쾌한 표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조박’이라는 말은 원래 ‘술재강’이라는 뜻으로 “옛사람이 다 밝혀서 지금은 새로운 의의가 없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남이 다 해 놓은 것을 그저 반복하고 있는 것이니, 이론을 지녀야 할 평론가에게는 대단히 무례한 말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은 인문평론의 핵심 멤버들(박영희, 임화, 최재서 등 -인용자 주)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해진다.” 채호석, 『1930년대 후반 문학비평의 지형도 『인문평론』의 안과 밖』, 『외국문학연구』 2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7, 345쪽.

용한 의도를 자세히 살펴보자.

그 때에 어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
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
돌이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 마태복음 18장 1-7절

예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제자의 질문에 성심껏 대답한다.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예수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자신을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때의 천국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같은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즉 현실의 논리에 따라 힘을 추구하며, 무엇인가를 찾아 외부로 돌아다니며, 자기 의견을 타인에게 주장하고 남을 공격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는 자신이 말하는 천국과 아이의 마음을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믿는 이 소자”를 실족케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중죄라고 말한다. 예수가 말하는 “어린 아이”는 인간 내

면의 타자이면서 사회 속의 타자이기도 하다.⁴¹⁾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하며, 인간은 누구나 “소자”의 세계를 옹호하고 지향해야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시인은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신약성서 『마태복음』 18절을 결합하여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닷속으로 침전하는 “불쌍한 프로메테우스”라고 연민하면서, 당대의 지성인을 비판한다. 당대의 현실적 맥락에서 지성인들은 프로메테우스처럼 “바다에臨한 斷崖에 쇠사슬로 얽어” 고통당하다가 발을 디디고 설 작은 기반마저 잃고, 마침내 “斷崖의 崩壞와 함께 深海中에 기피 떨어지고”⁴²⁾ 말았던 것이다. 김오성의 글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 혹은 채만식의 희곡 『제향날』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 등과 같은 당대의 지식인들은 시대를 피상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당시 민중들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1930년대의 지식인들은 원고료를 받고 해당 매체의 요구에 맞춰 글을 쓰는 자본주의 사회의 직업인이기도 하였다.⁴³⁾ 그래서 시인은 프로메테우스가 “소자”를 “실족케 하는 일”을 저

41) 율동주가 동시의 창작을 중요시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의 동시 창작이 유아기로의 퇴행이나 심약한 내적 독백의 언어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존의 부정적 시각이 결코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의 동심적 세계관은 시와 유리된 것이 아니라 운동주의 시정신의 한 축으로서, 시정신의 뿌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자아 완성을 향한 극복의 방식이었음이 곳곳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주는 동심지향 의지가 두드러진 시인이며, 그의 순연무구한 동심은 전 생애에 걸쳐 그가 갈구한 이데아요 유토피 아였던 것이다.” 윤삼현, 『운동주 시에 나타난 동심적 세계관』, 『현대문학이론연구, 2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231쪽.

42) 김오성, 앞의 글.

43) “식민지 조선에서 신문자본의 힘이 이렇게 비대해진 것은, 1930년대 일제의 만주 침공과 중일전쟁을 두 핵심적 계기로 삼는 조선 및 일본경제의 성장에 힘입은 것이었다. 전쟁기를 맞아 검열 역시 강화되었는데, 신문자본은 늘어난 광고를 소화하기 위해서 검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면 즉 문예면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질렀기 때문에 “목에 멧돌을 매달고 바다 속으로 침전하는 별”을 받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시 「간」의 시적 주체 “나”는 당시 지식인들이 신념의 실천으로 인해 결국 이르게 되는 자기 한계를 냉엄한 눈으로 직시하고 있다. 6연에 나타난 단호한 어조의 목소리는 3연에 나타난 “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가 “나”의 고통 속에서 성장하여 하늘 높이 힘차게 비상한 결과이다. 지혜의 광안(光眼)은 하늘 아래 펼쳐진 더 넓은 지평에서 전체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소자)’의 마음은 어른들의 욕망이 만들어가는 현실 지평의 바깥에 존재하지만 본래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근원이었다. 시인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의식 지평을 옹호하고 지향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운동주는 당시 지식인들이 근대 지식과 이념을 토대로 민중들의 행동을 독려하는 행위가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연자 멧돌을 그들의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리우는 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

유교적 이념을 토대로 형성되었던 조선은 왕과 그를 옹위하는 신하를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중앙집권국가였다. 그때 국가 이념은 체제 유지를 위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였으며, 그 희생은 대의를 위한 숭고함으로 미화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사회적 모순은 고전 소설 「토끼전」에 잘 풍자되어 있다. 이러한 구질서의 사회 체계는 공적 담론을 통해 충분히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일제의 강압에 의해 형성되는 근대적 사회 체계로 대체되어 갔다. 구질서와 관련

..... 이렇듯 문학장의 정치·경제적 토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 부수나 원고료 등 일본문학의 현상을 ‘선진의 모범향’으로 상정함으로써 한국문인들의 인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한만수, 『문학이 자본을 만났을 때 한국 문인들은?』, 『한국문학연구』 43호, 한국문학연구소, 2012, 262쪽.

된 담론은 일제가 주도하는 근대 담론에 의해 타당한 논의가 생략된 채 축결되어야만 하는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한 양상은 1910~20년대에 널리 읽혀진 인쇄본 『토끼전』에서 ‘토끼’의 영악함을 비판하고 ‘거북이’의 충성스러움을 찬양하는 서사 구조의 변화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는 중일전쟁, 진주만 공습 등의 침략 전쟁을 일으키면서 제국주의적 근대 문화를 파급해나갔던 그들의 본래 의도를 드러냈다. 그들의 책략에 포섭된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아까운 목숨이 헛되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30년대 새로운 근대적 지식을 섭렵한 지성인들은 이러한 일제의 책략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새 시대의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더니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민족주의 등의 거대 담론을 만들어 갔다. 서양의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된 근대 담론들과 시대 현실에 대한 담론들은 이미 일제에 의해 공고해진 자본주의적 근대 사회에 적용하려는 전문 지식인들에게 유효한 삶의 준거가 되었을지 모른다.⁴⁴⁾ 하지만 그러한 거대 담론들은 이 땅에서 고유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민중들에게 최소한의 생존 기반마저 뒤흔들며 뜻하지 않은 희생을 야기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었다. 운동주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념이나 지식 체계에서 벗어나 어린 아이와

44) 1930년대 언론자본은 상징자본의 일정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자본을 확충하는 선택을 했다. 그들로서는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또 다른 상징자본을 마련한 터이었으므로 정론적 문학에서 얻어지는 상징자본이 다소 위축된다고 해도 그다지 큰 위협이 아닐 수 있었다. 1930년대 문인들은 이미 언론자본에 기대어 서만 존립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니 이러한 상징자본의 약화(또는 다른 상징자본으로의 교체)라는 자본의 선택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발하기는 어려웠다. 그저 투덜거릴 뿐이었다. 이와 동시에 상징자본의 재생산과 이를 통한 경제자본의 획득은 그들에게도 절실했으므로 뭔가 정치성의 완화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자산이 필요했다.…… 국권 상실 과정에서 국가의 대리보충물로서 민족이 발견되었다면, 이제 민족과 문학은 민족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동일시될 수 있었다. ‘국가=민족=민족어’라는 이중의 은유, 하지만 그 원관념이랄 수 있는 ‘국가’의 회복가능성이 점차 희미해져버린 상황에서 민족어란 거의 유일하게 남은 문인들의 탈출구였다. 위의 글, 286쪽.

같이 순수한 자기 내면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주체를 정립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⁴⁵⁾ 운동주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란 서구철학에서 로고스의 세계가 처음으로 구성되는 선형적 지평과 같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북간도 시절에 쓰인 시작품은 기독교와 감성적 체험을 중심으로 한 자기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서울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 시인은 그렇게 형성된 자기 세계와 다른 타자들의 세계를 대면하면서 그 차이로 인해 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다.⁴⁶⁾ 시 「간」은 그러한 내적 갈등의 극점에서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찾아가는 시인의 깨달음을 보여준다. 그는 힘차고 빠르게 창공으로 높이 날아올라 지상 전체를 조망하는 독수리의 눈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러한 지혜로 현실 지평에서 추구되는 거대 욕망들의 실체를 꿰뚫어봄으로써 내적 갈등과 괴

45) 김상봉에 의하면, 근대적 주체는 “과학 기술을 받아드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외적 근대화”가 아니라 “내적 근대화 또는 정신의 근대화”에서 성립된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에서 “식민지 시대에 한국인은 ‘황국의 신민(臣民)’이었고, 해방된 나라에서 그들은 다시 ‘독재권력에 의해 동원된 국민’이었다. 즉 그들은 ‘근대적 주체도’도 ‘시민’도 아니라, 본질적으로 봉건왕조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것이 한국의 근대화의 비극이다.”(김상봉, 『인간은 언제 자유로운 주체가 되는가』, 『인물과사상』 46집, 인물과사상사, 2002, 84-85쪽) 하지만 운동주는 이러한 근대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의 중심에 서서 유교적 사회질서와 일제에 의해 왜곡된 근대화로부터 새롭게 정립해 가야하는 주체의 올바른 지침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 그의 시는 실존적 고뇌 속에서 “자기를 타율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모든 외적 권위에 맞서 자기의 존재와 삶을 오로지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형성하기 위한”(위의 논문, 87-88쪽) 치열한 노력과 그 성과를 간직하고 있다.

46) 데카르트에게서 주체는 실체이다. 존재의 확실성과 자립성은 주체에게 담보되어 있다. 서양에서 근대적 주체의 자기의식은 그런 자기 확실성의 확인이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근대적 자기의식이란 타자(일제 -인용자)에 의한 자기상실과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내적 자기분열의 확인이었다. 이런 자기상실과 자기분열 속에서 주체는 실체 없는 이름, 기의 없는 기표 또는 한갓 은유로서 부유한다. 그러니까 같은 근대적 주체라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경험했던 근대적 주체는 데카르트적 주체와는 다른 주체였던 것이다. 김상봉, 『운동주의와 자기의식의 진리』, 앞의 논문, 114쪽.

로움의 원인이 되어온 자기애적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동주는 시인의 천명을 이해하였으며, 창씨개명을 하고 ‘육첩방’의 ‘남의 나라’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일본 유학을 결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인은 “안개 속에 잠긴 거리”에 “가련한 많은 사람들을 신고서” “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러워 가는 것일까?” (『흐르는 거리』(1942. 5.12))라고 하는 시대인식에 이르렀으며, 또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쉽게 씌어진 시』(1942. 6.3))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5. 맺음말

시 『간(肝)』이라는 한 편의 시 텍스트는 내재적 구조만을 살펴볼 때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으로만 접근해 볼 수 있었다. 이것을 토대로 시 전체의 흐름 가운데 주어진 시 『간(肝)』의 자리를 가늠해 보았고, 창작 당시 시인에게 주어진 문화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재구성된 지평 위에서 있는 ‘시적 주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재구성해 볼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시 『간』의 시적 주체 ‘나’는 ‘토끼’, ‘프로메테우스’와 동일한 존재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엄밀히 분석해 보면, ‘토끼’는 3인칭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프로메테우스’는 ‘독수리’와 ‘거북이’처럼 ‘나’의 2인칭 대화 상대임을 알 수 있다. 2연에서 “나”는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간을 지키고 있는데, ‘코카사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곳이다. 즉 “나”는 프로메테우스가 결박되어 있었던 코카사스에서 ‘토끼처럼’ 도망해온 후,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간을” 말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1~2연의 ‘나’는 바닷가에서 돌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고 있고 6연의 ‘프로메테우스’는 바다 속으로 침전하

고 있다는 점에서, '나'와 '프로메테우스'는 다른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는 이미 제우스가 내리는 징벌을 받는 코카사스에서 벗어나 있으며, 다른 어떤 이유로 “목에 멧돌을 달고” 바다 속으로 침전하는 처지에 이르고 있다. 얼마 전 '나'는 제우스의 독수리에게 간을 잃을 위기에 접하였으나, 그런 위협으로 '나'를 이끄는 자는 '프로메테우스'라 할 수 있다.

북간도 시절 운동주는 순수한 동심을 간직하고 근대적 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적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 세계를 정립해 갔다. 이렇게 형성된 시인의 자기 세계는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면서 타자들의 세계와 부딪힌다. 자기세계가 타자에 의해 대상화되는 자기 분열의 과정에서 시인은 지식과 이념을 넘어선 새로운 의식 지평을 발견한다. 시 「간」은 이처럼 자기가 서 있는 현실의 지평 전체를 조망하면서 내적 갈등의 극점에 이르고 있다. 이 시의 시적 주체는 강한 어조로 자기 결의를 드러내고 타자를 호명하며, 동조, 거부, 연민 등의 심한 감정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시적 전개 양상은 시인이 실제 현실에서 비롯된 갈등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의 시적 주체 “나”는 일상으로부터 고양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시인의 분신인 것이다. 일본 유학을 결행하는 운동주는 더 넓은 지평에서 모순을 가진 타자의 세계를 포용하면서 근원적 동일성을 보증하는 자기 주체를 정립하고 있었다.

운동주가 살았던 시기에 많은 독자들에게 읽힌 <신구서림본> 「토끼전」의 서사구조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형성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획된 대중문화라 할 수 있는데, 천왕 중심의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운동주는 당시 문학 사회에서 변형되어 유통되는 「토끼전」의 서사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시 「간」을 창작하였다고 짐작된다. 이때 “거북이”는 당대의 권력 구조 내에서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 시 「간」의 창작 당시 지식

인들은 아이스퀼로스의 희곡에 프로메테우스를 자신들이 추구해야하는 인물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즉 제우스의 폭정에 맞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대항하는 프로메테우스는 일체에 강압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해나가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념의 노선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당대의 지식인들이 논의하는 담론들은 민중들이 살아가는 현실과는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직업인으로서 언론자본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었다. 운동주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이러한 당대 지성인들의 간곡한 호소에 마음이 동조되어 그들의 주장을 실천해야 한다는 자기 강박에 쫓겨 왔던 것이다. 시 『간』에서 시인은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신약성서 『마태복음』 18절을 결합하여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닷속으로 침전하는 “불쌍한 프로메테우스”라고 연민하면서 당대의 지성인을 비판한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의 마음은 어른들의 욕망이 만들어가는 현실 지평의 바깥에 존재하지만 본래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근원이었다. 시인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의식 지평을 옹호하고 지향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 후기 고전 소설 『토끼전』은 서민들이 모순된 당대 현실의 지평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토끼’라는 주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전체성을 강요하는 중앙 집권적 사회 질서는 개인의 독자적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토끼처럼” ‘바다’라는 권력의 장으로부터 벗어나 ‘육지’라는 고유한 삶의 영역을 현실 지평의 안전지대로 설정할 수 있었다. 운동주는 이제 일체에 의해 굴절된 근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독자적인 “나”로서 설 수 있는 의식 지평을 설정해야만 했다. 조선 후기 사회에 잠재된 권력의 위협으로부터 당대 서민의 삶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었던 “토끼처럼”, 시 『간』의 시적 주체 ‘나’는 지금-여기에 주어진 현실에서 자기 정립의 지평을 상정하고

있다. 구질서가 붕괴되었지만 아직은 확고한 사회 체계의 담론이 형성되지 못한 시점에서, 운동주는 과거 지평에서 자유인의 상징으로 우뚝 선 “토끼처럼” 자기 주체가 정립될 수 있는 현재 지평의 토대를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 「간」은 과거의 지평에서 현재의 지평을 이해하는 단서를 확보하면서 차이와 동일성을 가진 시간적 지평 간의 융합을 형성하고 있다.

시 「간」의 시적 주체 ‘나’는 현실 지평을 초월하여 전체성을 조망하는 위치에 서 있다. ‘나’는 권력의 희생양이 될 뻔한 토끼처럼, 제우스의 독수리로부터 스스로 자기 ‘간’을 지키며 자신과 소자들을 유혹하는 ‘거북이’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 복음 18절에 나오는 ‘소자’와 같은 입장에 서서 프로메테우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단호한 시인의 목소리는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길러왔던 독수리의 시선과 같은 지혜를 얻게 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시인은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자기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 가운데 근대적 주체가 정립될 세계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진정한 근대적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 지평이 가물가물 사라지며 땅과 하늘이 지평선으로 만나는 소실점에서 현현(顯現)하는 비가시대로부터 형성된다. 운동주가 서 있었던 현실 지평은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의 동참을 선동하는 시점이었고, 모더니즘, 사회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등의 이념들이 지성인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시기였다. 운동주의 시적 주체 ‘나’는 동심을 가진 ‘소자(小子)’와 지혜를 가진 독수리의 시선을 동시에 가지고 현실 지평의 경계에서 고유한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 인간의 지혜는 이러한 선형적 지평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모룡, 「윤동주의 시와 디아스포라로서의 주체성」, 『현대문학이론연구』 43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23-146쪽.
- 권성훈, 「일제강점기 자화상 시편에 대한 정신분석」, 『한국학연구』 42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37-67쪽.
- 김기영, 「프로메테우스 신화의 수용과 변용」, 『서양고전학연구』 45권, 한국서양고전학회, 2011, 151-173쪽.
- 김상봉, 「윤동주와 자기의식의 진리」, 『코기토』 10권,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87-116쪽.
- , 「인간은 언제 자유로운 주체가 되는가」, 『인물과사상』 46집, 인물과사상사, 2002, 83-93쪽.
- 김상열, 「채만식 희곡의 현실주의적 성격에 대하여—「제향날」, 「당랑의 전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집, 반교어문학회, 1991, 326-341쪽.
- 김오성, 「時代와 知性的 葛藤-프로메테우스의 事態」, 『조선일보』(1939. 1. 22)
- 김우창,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곳에서」, 『윤동주』, 문학세계사, 1995, 184-209쪽.
- 김응교, 「단독자 키에르케고르와 윤동주—「길」, 「간」」, 『기독교사상』 670호, 대한기독교서회, 2014, 166-178쪽.
- 김효신, 「한국 근·현대시에 나타나는 프로메테우스 수용양상 소고」, 『한국사상과 문화』 71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83-112쪽.
- 남송우, 「윤동주 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의 한 양상 - 일본 유학 시절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0집, 한국문학회, 2005, 167-188쪽.
- 남진우, 「윤동주 시에 나타난 빛, 어둠의 이원적 상상 구조 -간(肝)을 중

- 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55-72쪽.
- 류양선, 「운동주의 <肝> 분석」, 『한국현대문학연구』 32권, 한국현대문학학회, 443-472쪽.
- 백경옥, 「아에스킬로스의 프로메테우스」, 『철학논총』 34권, 새한철학회, 2003, 293-307쪽.
- _____, 「프로메테우스의 책략과 문명화의 문제」, 『서양고전학연구』 33권, 한국서양고전학회, 2008, 45-68쪽.
- 백철, 「時代的 偶然的 受理-事實에 대한 精神의 態度」, 『조선일보』(1938. 12. 6.).
- 송우혜, 『운동주 평전』, 세계사, 2001.
- 안병용, 「푸르게네프 산문시 “거지”와 운동주의 “트루게네프의 언덕”」, 『슬라브학보』 제21권 제3호, 2006, 185-211쪽.
- 안지영, 「사회진화론에 대한 비판과 ‘생명’ 인식의 변화-『학지광』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38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12, 83-113쪽.
- 왕신영, 「소장 자료를 통해서 본 운동주의 한 단면 - 소장도서, 특히 『예술학』을 축으로 하여」, 『비교문학』 27권, 한국비교문학학회, 2001, 259-278쪽.
- 운동주, 홍장학 엮음, 『운동주 전집』, 문학과지성사, 2007
- 윤삼현, 「운동주 시에 나타난 동심적 세계관」, 『현대문학이론연구』 2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217-234쪽.
- 윤지영, 「시 연구를 위한 시적 주체(들)의 개념 고찰」, 『국제어문』 39집, 국제어문학회, 2007, 141-165쪽.
- 이건칭 편저, 『운동주』, 문학세계사, 1995.
- 정병옥, 「잊지 못할 운동주의 일들」, 『나라사랑』 23권, 외솔회, 1976, 132-141쪽.

- 정주아, 『不安의 문학과 轉向時代의 균형 감각』, 『어문연구』 39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309-338쪽.
- 채호석, 『1930년대 후반 문학비평의 지형도 『인문평론』의 안과 밖』, 『외국문학연구』 2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7, 325-353쪽.
- 최진형, 『출판문화와 <토끼전>의 전승』, 『판소리연구』 25집, 판소리학회, 2008, 309-337쪽.
- 한만수, 『문학이 자본을 만났을 때 한국 문인들은』, 『한국문학연구』 43호, 한국문학연구소, 2012.12, 261-293쪽.
- 허정, 『윤동주 시의 정전화와 민족주의 지평 넘기』, 『어문론총』 51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571-608쪽.
- 미셸 콜로, 정선아 역, 『현대시와 지평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3.
- 폴 리콥르, 양명수 역, 『해석의 갈등』, 아카넷, 2001.

<Abstract>

A horizon of poetic subject appearing in Yun Dong-Ju's poem 「Liver」

Park, Gun-seok

A horizon of poetic subject in the poem 「Liver」 can be recreated by the reading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text, and also unfolding between a cultural context and the stream of Yun Dong-Ju's poetry. The poetic subject "I" in the poem 「Liver」 say to "the turtle", "the eagle" and "the prometheus", regarding them to second-person in the conversation. "I" am a man who escaped from the crisis of losing liver "like rabbit" in the classical novel. The my calling guys in the poem 「Liver」 are a symbol of others that the poet was a tangent in the existential situation. According to the novel 「rabbit」 widely read that time, "the turtle" was a man who waked up the self-identity within the power structure. The symbolic meaning of the Prometheus can be known from Greece plays written in the ancient times widely read in Western society, Chae Man-shik's play of 「The Memorial Day」, and Kim Oh-sung's thesis 「The conflict between The age and The intelligence」 a series over the sixth inning in the Chosun Ilbo. In the 6 stanza in this poem, Section 18 in 「St. Matthew's Gospel」 and the myth 「Prometheus」 are combined in the flowing of context. In the 3 stanza in this poem, "the Eagle" is symbol of poet's inner wisdom. The period division in the deployment process of Yun Dong-Ju's poetry are greatly divided before admissions of entrance in the

Yeon-Hee University, after entrance, and the time of studying in Japanese University. the self-world formed in Christianity and childhood experience perpetuates poetic pursuit. The poet opens his eyes in a invisibility that is Transparent appearing and disappeared in the visibility. The poem 「Liver」 is a speech-act formed in the deployment process of Yun Dong-Ju's poetry.

At that time, intellectuals forced the people of the rustic life to receive their perceived world in the name of enlightenment. 'The innocence of childhood' that he pursued during his lifetime, is a priori horizons that humans must keep it as a treasure. The poetic subject in the he poem 「Liver」 seems to unfold visibility in the poetic horizons through the voice that condemn Prometheus. At same time, a invisibility in the poetic horizon that the voice sounds, manifests defending the people that was alienated from public discourse.

Key Words : Yun Dong-Ju, poetic subject, visibility, invisibility,
Prometheus, innocence of childhood, intellectuals, 1930's.

■ 논문접수 : 2015년 11월 13일

■ 심사완료 : 2015년 12월 4일

■ 게재확정 : 2015년 12월 20일